

中 강소성과 경제교류 본격화

전북도, 실무협상단 구성 경제협력 방안 마련

전북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강소(장쑤)성과의 경제교류 행보를 본격화한다.

이는 지난달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와 강소성의 자매결연 25주년을 맞아 중국 강소성을 공식 방문해 러우 친지엔 당사기와 우정릉 강소성장과 논의했던 발전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이다.

핵심이제는 중국 강소성과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 공동조성 활용, 새만금과 연운항간 바닷길을 통한 협력 방안 등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송하진 지사의 강소성 방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강소성과 실질적인 경제교류를 위한 실무협상단을 구성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 실과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상단은 새만금 한중협력단지, 해상항로 개설, 새만금재생에너지, 기업투자 및 수출상담회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강소성 정부와 협의에 돌입한다.

이번 강소성 후속조치 실무협상단은 이번 새만금산단 5공공 공동투자 활용 등 경제협력방안, 군산(새만금) 연운항간 폐수선 운항 등 바닷길을 통한 협력 방안,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이 맞게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핵심 의제로 선정하고 강소성 측과 심도 있게 협상해 나갈 계획이다.

도 실무협상단은 강소성과의 실무협상을 위해 다음달 중순 중국 강소성을 방문해 실질적 경제교류 협력을 위한 회담과 글로벌 기업 GCL 벤처마킹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조치 실무협상단을 이끌고 중국에 갈 예정인 나석훈 일자리경제국장은 "양 지방정부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 새만금산업의 속도와 양 지역 간 바닷길 연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전북도와 중국 강소성 간은 지난 25년간 쌓아온 긴밀한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는 화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위한 제1차 민관협의회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우원식 국회 기후에너지산업 특위 위원장, 신창현 국회의원, 주영준 산업부 실장, 유기상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 및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등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출범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 민관협의회 출범

수산업과 공존 · 상생방안 마련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했다.

전북도는 2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국회 기후에너지산업 특위 위원장, 신창현 의원,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담당장, 고창·부안 단체장, 지역대표, 주민대표 등 민관협의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을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을 알렸다.

본 민관협의회는 전북도와 국회, 산업부, 지역대표,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에너지전문기관이 참여하고, 자문위원과 수산업·풍력관련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총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관협의회에서는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방안 및 주민참여형 수익 공유모델 개발 등 여러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며, 민관협의회가 종료되는 올해 말 최종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 사업과정에서 고창·부안 주민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주민반대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시범·확산단지 추진에 있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소통을 추진하며 정부정책추진과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상풍력 구축과 상생이라는 가치에 전북에서 출범한 민관협의회는 지역주민과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간의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하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북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더불어 세계적인 예코에너지 발전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관협의회 개최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서남권 해상풍력사업 추진여부는 민관협의회에서 결정된다는 점과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고창·부안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해상풍력사업이 우리도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스포츠 강도 전북' 명맥 이어간다

전북스포츠과학센터, 찾아가는 현장지원 등 체육발전 위한 계획 추가 수립

운동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스포츠 강도 전북'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

23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스포츠과학센터가 체육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가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선임 된 이영란 신임 센터장을 중심으로 기존 업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북체육 미래도 제시하는 이른바 '운고지신'의 자세를 펼쳐겠다는 것이다.

전북스포츠과학센터의 발전 전략은 크게 ▲공공스포츠클럽 선수, 전문선수로 확대 전환 ▲스포츠과학지원 혜택 선수 확대 ▲선수 경기력 향상 위한 허브(HUB)로 성장 등 3가지다.

현재 인구유출·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기종목을 제외한 비인기종목에서는 선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공스포츠클럽에 속해있는 선수들의 측정데이터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체육영재선발시스템과 연계해 실력이 뛰어난 클럽선수를 전문선수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강화, 대



운동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전북스포츠과학센터가 최근 체육발전을 위한 계획을 추가 수립했다.

중교통 불편 등으로 원거리지역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스포츠과학지원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와 도교육청 등 도내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등을 통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선수들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센터를 전문 선수 양성 위한 핵심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선수와 지도자 돌봄(케어)시스템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전북스포츠과학센터는 최첨단 장비와 체력향상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더 많은 선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172명 신규 임용

전북도는 신규 채용된 172명(화재진압 149명·구조 15명·구급 8명)의 새내기 소방공무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규 임용된 소방공무원들은 지난해 공개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6개월 동안

안 중앙소방학교에서 기본 교육과 행정실무, 소방전술 등 현장 대응 교육 훈련을 이수했다.

이날 임용으로 이들은 119구조대 및 안전센터에 배치돼 구조, 구급, 화재진압 등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처리

하며 소방관으로 본격적인 현장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최용범 부지사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 달린"며 "도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농기원, 균형발전사업 평가 우수사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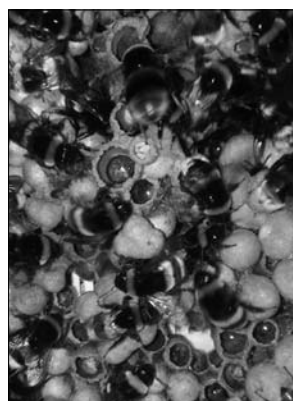
전북도농업기술원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합센 정수수정별 활용, 기후변화대응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균형발전사업 평가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의 '합센 정수수정별 활용, 기후변화대응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고품질 과채생산에 위한 지역 내 안정적인 매개곤충 공급체계 확립에 기여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의 효과를 인정받아 우수사례로 선정 되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확보와 사업 성과 극대화를 위해 매년 평가를 실시해 벤처마킹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전국에 홍보해왔다.

올해는 각 시·도가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추천한 68개 사업을 심사해 최종 20건을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시·군은 9월 25~27일 순천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기간 중 균형위의 표창을 받는다.

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업생산 환경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사업을 더욱 발굴하여 삼각농정의 핵심가치인 보랏빛 농업을 실현하고 전북



도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19-1108호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재열람공고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완주군계획위원회 수정의결 사항 반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1. 완주군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사
 - 가.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총괄조사
 - 1) 위 치: 완주군 비도시지역 일원
 - 2) 결정(변경) 내용: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안)

구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자연취락지구(비도시지역)	318	6,550,925	(중)10	(중)2,346,074	328	8,896,999	변경:305개소 신설: 23개소 통합: 13개소

※ 지구명 및 지구번호 변경은 변경내용에서 제외

나.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조사: 기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다.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사유서: 기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2. 열람(의견제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의견제출)장소: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읍7면사무소
4. 관계도서: 실용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완주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